

WCC 반대, 이중행위자 각성 촉구

WCC관련 예산 지급금지가처분 신청, 7개 연합기관 협의회 구성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이하 한기연합)는 지난 15일(금) 오후 2시 30분 교계기자간담회를 갖고 세계교회협의회(WCC) 10차 부산총회 반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가 마련해놓은 WCC 관련 예산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 WCC 총회 철거추진 운동, 세미나 개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관련 한기연합은 15일(금)과 16일(토) 중앙일간지에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이름으로 WCC 총회 개최가 철회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계속 펼쳐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한기연합은 이같은 행보에 대해 WCC가 한국교회 성도들을 혼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적극 저지하고자 행동에 옮기게 되었다고 밝혔다.

성경적 신앙을 견지하는 교단과 교회들이 WCC 제10차 부산총회가 기독교회에 미칠 나쁜 영향을 우려하여 WCC 제10차 부산총회를 반대하는 집회 및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WCC의 정체를 알리는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는 일들을 줄기차게 하고 있다. 반면에 WCC 제10차 총회를 준비하는 기구에서는 다각적으로 반대를 막아 보려고 애쓰고 있다. WCC총회 한국준비위원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으나 NCKK실행위원회에서 이를 분체

삼고 나서므로 급기야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총무가 사과문과 아울러 공동선언문파기를 선언하고 사임하였으며 한기총은 WCC총회 반대로 급진화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많은 교역자들과 교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어 기독교단과 교단연합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그동안 각 연합기관은 나름대로 WCC의 정체를 알리고 10차 총회 반대 및 철거를 촉구하여 왔으나 이제 힘을 결집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7개의 단체 대표자들과 일부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선 성명서를 일간지에 공표하기로 결의하였다. 2차 모임에서 성명서 문안을 작성하여 2월 15일과 16일에 중앙일간지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7개의 단체가 한국교회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라는 명칭아래 신속히 모여 논의하고 결의하며 공동보조를 취할 것도 결의하였다. 각 연합회의 대표는 모두 공동대표가 되고 회의 시 임시 의장을 정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였다.

한기연합은 중앙일간지에 'WCC의 정체를 밝히며, 이중행위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WCC 10차 총회는 한국

기독교회 일부 교단과 단체가 참여할 뿐이며, 대다수 교단과 단체는 부산총회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 △WCC는 성경과 그리스도와 진도에 대해 정통 기독교회에서 믿고 가르치는 진리를 부정하고 있다. △WCC는 종교다원주의 단체이므로, '교회협의회'라고 하기보다 '종교협의회'라는 명칭이 합당하므로 명칭을 바꿀 것을 촉구한다. △WCC 10차 총회에 가담하는 교계 지도자들은 이중적 언행으로 교역자와 신자들을 미혹하지 말고 자기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인들 앞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다'고 열변을 토하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 외에도 그리스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가담하는 이중성을 띠는 소위 교계 지도자들은 정직하지 못하다"며 "NCKK 회원으로 가입하고 WCC 부산총회에 가담하는 이유가 그 단체의 본질과 성향을 바꿔놓으려는 것이라면, 한편으로는 WCC의 실상을 감추거나 변호하고 더욱이 총회의 성공을 운운하는 이런 이중성은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이거나 허영에 들뜬 명예선으로 의심받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직한 지도자라면 자신이 속한 교단과 교회의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WCC에 대하여 각자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대로 기감 없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회신학원 2013학년도 봄학기 교수회의, 새학기 점검



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원(원장 배진기 목사)은 지난 14일(목) 오전 1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2013학년도 봄학기 교수회의를 갖고 새학기 신학수업을 위해 전반적인 사항들을 점검했다.

이번 학기에는 모세오경, 목회신학, 사도행전, 묵시문학, 실천목회, 로마서연구, 기독교윤리, 오순절 성령운동의 역사,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조직신학(교회론), 구약역사서 연구 등의 과목이 강의된다.

총회신학원은 개교 이래 우수한 교수진의 지도와 학생들의 열정이 어우러져 선교의 극대화를 이루어 가고 있다.



'기적(奇蹟)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 6:22-26)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기적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현실에 나타나는 것으로 인간의 상식과 합리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나타내는 수단입니다. 사물을 깊이 관찰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인간에게는 기적으로 지각됩니다. 이스라엘 지손의 출애굽 역사는 온통 기적 사건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신약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그 행하신 일들이 기적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하나님의 목자이시며 메시야이심을 사람들이 알고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통 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의 사랑과 긍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셋째는,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적을 기대하도록 교훈하셨습니다.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그를 향해 오는 것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그들을 가르치시며 병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 가므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시옵소서”라고 여쭙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떡을 먹을 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시험하여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대답하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하였습니다. 잠시 후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하였습니다. 빌립은 주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안드레는 기대하였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요전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모두 배불리 먹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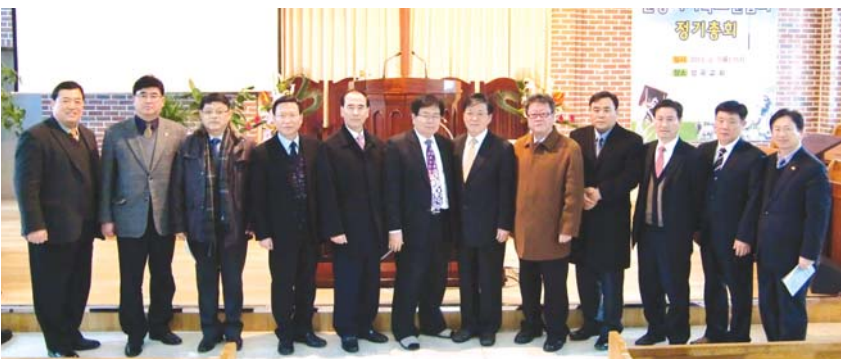
니하고, 기적으로 주어진 떡과 물고기에만 마음을 두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을 교훈하셨습니다. 다음 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그 앞에 반석하며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였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지라도 예수님을 이용할 생각만 하였습니다. 표적이란 연연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믿음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기적을 체험하여 믿음을 갖게 되기도 하지만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성경 말씀에 기반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적 체험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믿음의 원인이며 믿음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올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하게 하여 왜곡되게 전하고 행하면 그가 실속 아무리 크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다고 하여도 주님께 거절당하고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마 7:21-23) 이적과 기적을 보이며 우상을 좇아 섬기려고 하는 자의 말을 청중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신 13:1-3) 예수님은 경계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케 하려 하리이다” (마 13:22)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도 하나님이 성도를 위하여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며 간구하십시오. 성경에 언약된 말씀대로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인한 기적적인 문제 해결과 치료를 믿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큰 기적이 무엇인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요전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모두 배불리 먹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지 아

(은혜와진리교회)



'우상의 도시 안동을 그리스도의 도시로'

강태진 목사 안동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선출

본 교단 대구경북지방회 회장 강태진 목사(안동 성곡교회)가 지난 7일(목) 안동시기독교총연합회 제30회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안동시기독교총연합회는 안동지역 21개 교회와 기독교 기관을 대표하는 단체로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강태진 목사는 2013년도 한 해 동안 안동 지역의 교계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

신임 대표회장 강태진 목사는 “안동은 도시 명칭을 ‘한국 정신문화의 고향’ 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유교와 불교, 토속신앙이 깊이 뿌리 내린 우상의 도시”라면서 “교

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이제 안동을 더 이상 우상의 도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시로 변화시켜 나가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이를 위해 강 목사는 “우상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는데 필요한 영적무장과 목회자들의 영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와 기관장을 초청하는 조찬 기도회 개최, 교회연합과 지역적 특성상 종교편향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복음전파 위한 다각적인 선교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기에 연합회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나님의성회 제61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1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3년 3월 25일(월)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5가 90-3 TEL. 02-2675-5181~3)
3) 참석대상 : 실행위원(총회 임원, 정책위원, 지방회장)
※ 점심식사 등 준비반계로 참석여부를 3월 15일(금)까지 총회본부 전화(02-2675-5181~3) 또는 팩스(02-2677-5181)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23일

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김인찬
 THE KOREA ASSEMBLIES OF GOD 총무 목사 김홍성

150-1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90-3 총회본부 TEL 02)2675-5181~3 Fax 02)2677-5181 http://www.aogk.org